

선생이여 고이 잠드소서

— 故 이인범 교수의 영전에 —

나 운 영

우리나라의 명 테너요, 음악계의 거성인 이인범(李仁範, 1914 ~1978) 선생은 이제 가시고 말았다. 이제부터 다시는 그의 육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가을의 적막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구나.

선생께서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에 이유선, 김성태, 김생려, 정희석 제씨와 함께 현재명 박사의 지도 아래 자라나 마침내 1939년 「전 일본음악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일본사람들을 물리치고 당당 수석으로 입상했으니 그의 실력은 이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선생은 참으로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였으니 선생이 1941년 일본 고등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1942년부터 현재명 박사가 주재하던 「경성후생 실내악단」의 주동 멤버가 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은 물론 만주까지 순회하면서 <가고파>, <내 마음>, <희망의 나라로>, <고향 생각>, <산들바람> 등 우리 가곡과 수많은 이태리 오페라의 아리아를 불렀을 때 선생의 인기는 김천애 씨와 함께 절정에 달했었으니 이제 선생이 떠나신 지금 메어지는 가슴은 더욱 아플 뿐... 8·15해방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6·25사변 중에는 김생려, 김천애 씨와 함께 「해군 정훈음악대」에서 여전히 연주활동을 하시다가 1953년 얼굴에 불의의 중화상을 입어 선생의 치명상에 대해 동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때 선생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1956년에 「재기 독창회」를 가져 팬들의 기도와 성원에 보답했었으니 얼마나 훌륭한 분이랴? 그뿐 아니라 1960년부터 모교인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수 차례의 독창회와 오페라 주연, 레코드 취입 등 눈부신 활동을 계속했으니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수명이 긴 연주가이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년 전부터 건강을 해쳐 오로지 음악대학 학장으로서 대학 오페라 운동에만 전력을 기울여 마침내 <라 트라비아타>와 특히 우리나라 초연인 모차르트 작곡 <마적>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나 불행하게도 <마적> 초연의 날에는 참석조차 못하시고 병원 침대에서 병마와 싸우게 되었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돌아보건대 연세음악은 이 해로 55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1918년 김영환 선생이 음악과 없는 음악부 교수로 취임했고, 1928년에 현재명 박사가 이어받은 이후 박태준 박사의 바톤을 다시 선생이 이어받아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했으니 선생의 공로와 업적은 이 하나만으로도 높이 찬양받을 만한 일이 어찌 아니랴?

다만 음악대학 신축에 대한 꿈의 실현을 보지 못하시고 영면하셨으니 이 정신적 고민이 그의 건강을 더욱 해쳤던 것이나 아닐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성악가, 우리 음악계의 또 하나의 별을 우리는 잃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성경 말씀대로 후학들은 선생이 남기고 가신 뜻을 받들어 나아갈 것이니 선생이여 고이 잠드소서.

<1973. 9. 17 연세춘추>